

취임사

종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아 격정이 앞섭니다.

조성래 직전 회장은 많은 의욕을 가지고 6년을 대종회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각종 살림살이와『함안 조씨문적총관』발간착수 등 내실화에 힘써 기틀을 다쳤고 다른 역대 회장들 역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알고 있어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종원 여러분과 역대 회장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종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집무실에서 조동휘(趙東輝) 신임회장

옛말에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 명이 한 숟가락씩을 양보하고 도우면 한 사람의 식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三十萬의 종원이 한 숟가락씩을 양보하면 三萬명의 한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종원이 합심하면 큰 어려움도 무난히 해결이 가능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남도 돋고 사는데 한 시조를 모시는 같은 핏줄끼리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며 배려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종원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발전적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변천의 역사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겠지요

우리 종회도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고칠 것은 가감하게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여 모든 종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조님들께서 남기신 훌륭하고 값진 많은 유적들은 국가적으로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손상 없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전 종원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하여 청장년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에 대하여 깊은 고려가 필수적이며 교육에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원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일들이 몇 사람의 종원들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30만시 3만반의 정신으로 합심하고 단합하여

하나하나 성취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다 같이 협조하고 노력합시다.

2014. 4. .

대종회 회장 조동휘

회장
프로필

서울 보성고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합자) 안동산업사 대표
(합자) 문화산업사 대표
안동농산 대표
대원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동시 행정자문위원장
안동경찰서 행정발전위원장
한국농산물냉장 협회장
안동검찰지청 방법협의회장
안동법원지원 가사조정위원장
대창학원재단이사장
안동대 발전협의회장
안동교육청장학지도 위원장
대한적십자경북지사 회장

정절공(貞節公) 조묘 향례와 대종회 정기총회

지난 4월 6일(음 3월 상정) 함안군 군북면 조묘전에서 80여 명이 종원들이 모인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초현관에 조재우(趙在宇)종손, 아현관에 조성도(趙性道, 耐軒公 후 斗岩公派) 종현관에 조경문(趙璟汶, 南溪公 후 忠毅公派) 종원이 잔을 올렸고, 집례는 조용하(趙鏞河, 耐軒公 후 松浦公派), 축관에는 조동제(趙東濟, 耐軒公 후 斗岩公派), 종원이 맡아 거행했다.

향례 후 아침 식사를 조묘전 앞 원복재에서 하고 서산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10시부터 제 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효제(趙曉濟)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되었고, 회의에 앞서 조용방(趙鏞邦, 節度使公派) 도유사와 조정제(趙貞濟, 虞侯公派) 서산서원 유사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조훈래(趙勳來, 南溪公 후 忠毅公派)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2013년 결산 승인과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의결 되었다.



문중발전에 공로가 많은 조용방 도유사와 조정제 서산서원 유사가 조성래 전임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모습

자리를 옮겨 회의를 한 결과 안동에 거주하는 어모공파(禦侮公派) 조동휘(航祿鏞, 83세) 종원이 적임자로 선임되었음을 총회에 나와 발표를 했다.

신임 회장은 젊은 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안동지역에 30여 개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재력과 학식을 갖춘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어 총회에서 조권제(趙權濟, 執義公派), 조용철(趙鏞喆, 南溪公 후 忠毅公派) 종원 2명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선임 조동휘 회장은 수

략과 인사말에서 재주와 능력은 없지만, 문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대종회는 구성원인 종원의 열성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으니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했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발전과 변화를 모색하고 노소와 종원들 간에 소통이 잘 되게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했으며 정기총회도 폐회되었다.



대종회 회장에 선임된 조동휘 신임회장의 수락과 인사말을 하는 장면

국천제(菊薦祭) 봉향



교복을 입고 참가한 군북중학교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지난 10월 2일(음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생육신 이맹전(李孟專, 精簡公, 耕隱), 조려(趙旅, 貞節公, 漁溪), 원호(元昊, 貞簡, 觀瀾), 김시습(金時習, 清簡, 梅月堂), 성담수(成聃壽, 靖肅公, 文斗), 남효온(南孝溫, 文靖公, 秋江)의 높은 절개와 고고한 뜻을 기리며 추모하는 국천제가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 서산서원(西山書院, 원장 李正均)에서 李正浩 유림

이 집례하고, 조진래(趙辰來)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초헌관을, 조근제(趙根濟) 전 경남도 의회 부의장이 아현관을, 조민규(趙敏奎) 합포문화동인 회장이 종헌관을, 이정환(李正煥) 유림이 축관을 맡아 엄숙하게 거행했다.

성인 참석자 70여 명과 군북중학교 2학년 38명 전원이 인솔 교사 2명과 함께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생육신을 봉향하는 서산

서원은 1703년 예조판서 조상우가 숙종께 생육신을 봉향할 서원의 건립을 간하여 1704년 숙종의 유후가 내려졌으며 제문과 봉안문을 따로 보내 위폐를 모시고 생육신의 영령을 위로했다.

1713년 숙종 39년에 윤허를 받아 서산사우(西山祠宇)라는 나라에서 내리는 현관이 내려지고 토지와 노비가 하사돼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으며 매년 음력 3월 중정일(中丁日, 두번째 丁日)에 미천제(薇薦祭)를 지내고 중양절인 9월 9일에 국천제를 지내오고 있다. 국천제를 마치고 12시 경 조판규 서산서원 사무국장 사회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대종회 조동휘(趙東輝) 회장과 화수회 연합회 조용완(趙鏞玩) 회장의 축사에 이어 조권제(趙權濟)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2013년 결산 승인 건과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이 원안대로 통과 되

었으며, 임원개선에 조성훈(趙性勳) 이사장이 10년 가까이 이사장을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서산서원이 경남도 지방문화재 등재에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중론으로 연임하기로 의결되어 조성훈 이사장이 수락을 했고, 임원 보강에 선임권은 위임해줄 것을 요구해 그대로 통과 되었다. 회의에서 회

계연도가 정부년도와 달라 애로사항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공익법인이므로 정부년도에 맞추어 정산하고 있다며, 정부년도에 맞추는 것도 참고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살문과 서원 주변 경관의 미화에 대해 참석한 종원의 특별 주문이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겠다고 했다.

회의가 길어져 오후 1시 30분이 넘어 폐회했다.

합천 묘향안내

봉익대부(奉翊大夫)판도판서공(版圖判書公)

11월 22일(陰 10. 1) 토요일 오전 11시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185-3

함안 삼선소(三先所) 묘향안내

12월 2일(陰 10. 11) 화요일 오전 9시
군북면 원북 전서공(典書公) 묘역

12월 2일(陰 10. 11) 화요일 오후 1시
군북면 하림 시정공(寺正公) 묘역

12월 3일(陰 10. 12) 수요일 10시
법수면 강주 정절공(貞節公) 묘역

정무부지사를 만나 국고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2000년도 함양군 출신 재미 동포의 성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7000만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당과 의총을 펼두로 착공할 수 있었다. 그 후 연차적인 계획으로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인근 여러 군관민이 최정예부대와 생명을 걸고 총력전을 펼쳤던 황석산성 전투가 가지는 비중과 처절했던 역사적인 의미에 의해 행사와 시설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 하고 다시 분발하여 걸 맞는 자리 찾기를 다짐한 추모제였다.

추모제 후 산청군 대소현 세장으로 자리를 옮겨 충의공 대소현선생 불천위제가 거행되었고, 이어 충의공 대소현공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면으로**

순의 제417주년 황석산성 추모제 및 불천위제



앞에서 볼 때 왼쪽이 초헌관 대종회 고문 조진래(趙辰來) 경남 정무부지사, 가운데 임창호 함양군수, 오른쪽이 종헌관 대종회 회장 조동휘(趙東輝)

지 참가해 이틀간 치열한 공방 끝에 음력 8월 18일 결국 성이 함락된다.

이곳에서 조종도 함양군수와 꽈준 안의현감은 장렬한 죄후를 맞았으며 꽈준의 두 아들도 전사하고, 딸·며느리와 조종도의 부인 전의 이씨는 자결하는 등 수많은 남녀노소가 순절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임창호 군수는 인사말에서 “황석산성 전투는 호국과 충의를 나타내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 라며 “산성에 담긴 역사적 교훈을 후대사람들이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다

방면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에서 “임진·정유재난 후 왕조가 바꿨으면 비참한 역사로 민초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덜했을 것이다”라는 신선한 발언과 지금 면단위(面單位)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군단위를 넘어 도단위로 행사가 되게 협조하겠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다.

숙종(肅宗) 40년(1714)에 황석산 밑에 사당을 짓고 황암사(黃巖祠)라 사액(賜額)되어 당시 황석산성 싸움에서 순절한 모든 분들의 원혼(冤魂)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내왔다.



불천위제에 잔을 올리는 종손 조동윤(趙東潤)

2면에서 연속

총회에서 대소현 선생의 후예들답게 문중발전을 위해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거침없는 열띤 토론으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요했다. 문중

일을 많이 한 조현옥(趙顯或) 종원의 유고로 조삼래(趙三來) 종원이 조현옥 종원의 일을 맡고, 조삼래 종원의 감사직은 조현판(趙顯判) 종원이 하기로 의결했다.

행사

3월 26일

전북화수회(회장 趙成濟)에서 110명의 일가들이 관광버스 3대를 대절하여 서산서원, 전서공신도비,

충의공 대소현 쌍절각, 채미정, 어계고택 등 선적지답사를 와서 대종회에서 조성래 회장 등이 나가 영접하였다.



서산서원에서 단체 기념 촬영

4월 1일

경상대학교 도서관(관장 허권수)에 함안조씨 대동보가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에 대종회

에서 어렵게 구입하여 4월 1일 대종회 회장 조성래, 감사 조용철, 운영위원 조훈래, 자문위원 조문규 종원이 방문하여 전달했다.



좌측으로부터 대종회 자문위원 조문규, 경상대 허권수 교수, 대종회 회장 조성래, 대종회 운영위원 조훈래, 대종회 감사 조용철

4월 5일

사과공파(司果公派)(회장 趙官來) 종회에서 38명의 일가들이 군북면 일원의

선적지와 법수면 정절공 어계묘소에 참배를 했다.

대종회 조성래 회장과 조효제 사무총장이 영접하고 해설을 했다.



사과공파 회장 및 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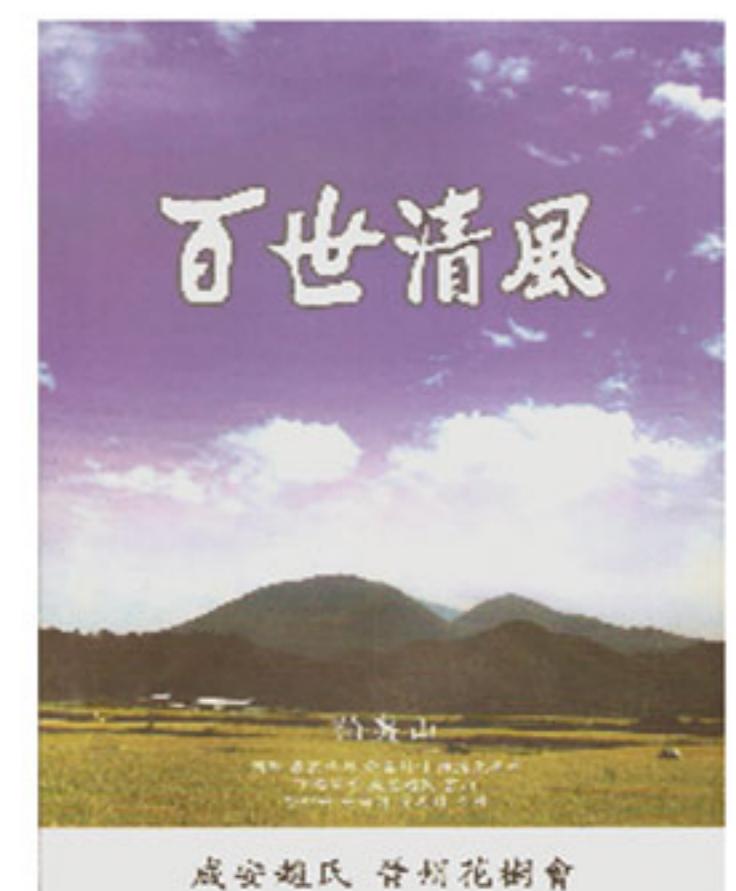
4월 16일

서산서당(원장 趙鍊奎)에서 정절공 어계조려 선생을 포함하여 생육신 여

섯분을 모시는 미천채례가 거행 되었다.

초현관에 안일중(순홍, 安一中), 집례에 이정균(재령, 李正均), 축관에

박영덕(朴永德) 이였고, 행사에 참석인원은 48명이었다.



咸安趙氏 登壇花樹會

진주 동방호텔 연회장에서 진주화수회 제36회 정기총회(회장 趙日來)가 있었다.

대종회 조효제 사무총장의 주선으로 집의공파 회장 조영제, 사과공파 회장 조관래, 우후공파 회장 조옥래, 남계공파 회장 조수남, 서산서원 이사장 조성

훈, 본향 함안화수회 회장 조용득, 대종회 감사 조용철, 대종회 자문위원 조정규, 조상제, 조옹장학회 회장 조종래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5월 11일

진주 동방호텔 연회장에서 진주화수회 제36회 정기총회(회장 趙日來)가 있었다.

대종회 조효제 사무총장의 주선으로 집의공파 회장 조영제, 사과공파 회장 조관래, 우후공파 회장 조옥래, 남계공파 회장 조수남, 서산서원 이사장 조성

6월 28일

울산 목화웨딩홀 5층 대연회장에서 150여 명의 종원들이 모인 가운데 울산화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대종회 조성래 회장, 대종회 조효제 사무총장, 우후공파 회장, 부산화수회 직전 회장 조현준 등이 참석해 축하를 했다.

총회에서 전임 趙仁奎(항렬 來)의 임기가 만료되어 조용수(趙鏞洙) 회장을 선임했다.



울산화수회 회장 이·취임식 진행장면

8월 12일

안동시 북후면 참지공파 화수회(회장 조병우)에서 현감공 묘소와 군북면 일대 유적지 견학이 있었다.



8월 15일

관결공파(判決公派) 파보가 완성되어 배포에 들어갔다.



하림재 앞에서 방문단

『함안조씨 문직총관』 출판 임박

방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0월 15일 10시에 대종회 사무실에서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체계점검을 하였고, 출판사로부터 받은 기본을 편집위원들이 다시 분담하여 혹시 오류가 있는지 10월 28일 까지 정독을 한 후 마지막 회의를 거치기로 했다.

10월 16일에는 편찬위원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출판을 가능한 시사 전에 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이밖에 충의문화 수련원 건립과 뿌리공원 조형물 건립의 건에 따른 제반 문제를 토의했으나, 지면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당선 및 인물동정

조윤선 정무수석 임명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조윤선 정무수석

지난 6월 12일 경남의령 출신인 조윤선(趙允旋, 執義公派, 본보 61호 참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되었다.

정무수석은 청와대 8개 분야 수석비서관 중 한명으로 국회·정당간의 소통 등, 관련업무 보좌, 행정 및 치안 업무를 보좌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조수석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33회 사법

고시 합격 후 변호사,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한나라당 대변인,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등 화려한 경력과 수입에 비해 많은 기부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7월 3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평리위안 여사가 한국을 국빈 방문하자 조수석이 평리위안 여사의 의전을 맡았고, 패션 외교로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본보 55호 참고).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초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당선 후 구청장 집무실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여 구민들과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형태의 휴게 공간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보도 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 단속하는 등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은희(趙恩姬, 執義公派) 종원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단국대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시

조현일 경북도의회 의원 당선



경북 경산 출신 조현일(趙顯日, 동계공파) 도의원 당선자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들과 한 약속

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자는 "합리적인 견제와 규제 역할은 물론 균형과 조화를 통한 최적의 안을 만들고 지역사회발전과 지역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자는 바르게살기 운동 경산시협의회 부회장, 경산라이온스 부회장, 경산맥심회·청록장학회 회장 등, 지역에서 활동을 해 왔다. 아버지는 경산에서 여러 곳의 면장을 역임하며 존경을 받았던 조영래(趙英來) 종원이다.

7차 문적총관 편찬 위원회 회의

지난 7월 22일 대종회 회의실에서 문적총관 편찬 위원회가 편찬위원장(대종회 회장 趙東輝) 주재로 열렸다.

사무총장의 입금내역과 지출명세 현황의 보고가 있은 후 회의에서 원파에 추가입금을 독려하기로 하고 화보내용 점검을 했다.

체제에 대한 토의에서 발간사는 대종회 회장 조동휘(趙東輝), 서문은 대종회 고문 조필제(趙弼濟) 전 대종회 회장 조성래(趙聖來), 편집 후기는 편집 위원장 조훈래(趙勳來), 교감기는 부산 경성대학교



대종회 조성래 상임고문 주재로 열린 편찬위원회

정경주 교수가 쓰기로 했다. 인쇄 후 원파에 책 배부는 10부씩 배부와 함께 협찬금에 비례해서 배부하

기로했으며, 1,000부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조진래 경남 정무부지사 재임명



경남 함안 출신 조진래(趙辰來, 南溪公 후 忠毅公派) 본회 고문이 지난 6월 24일 경상남도 정무부

지사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재임명 되었다. 도청(道廳)의 정무부지사는 정부와 국회, 도의회 등과 관련된 정무를 담당한다. 내년 하반기 진주 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도청 서부청사가 완공되면 3~4개 국(局)과 함께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 결재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본인이다. 조정무부지사는 함안군 법수면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법학과

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김해&세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의령·함안·합천지역에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온바 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 지난 9월 11일 황암사 추모행사와 10월 2일 서산 서원 국천제 헌관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조우성 경남도의회 의원당선 후 부의장으로 활동

경남 함안 출신 조우성(趙祐成, 濟, 南溪公 후 忠毅公派) 종원은 부지런한 학구파로 의원재직 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지난 선거에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고령사회에 걸맞은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 경남도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등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며 공약으로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정상화추진'·'봉암공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등을 약속하며, 경남 창원시 제11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여 당선 된 후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상래 전남도의회 의원 당선



전남 곡성 출신 조상래(趙象來, 節度使公派) 종원이 전남도 의회 의원으로 당선 되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제6대 곡성군 군의원, 제8대 전남도의원을 지낸 조당선자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뛰어 다니며 몸으로 뛰고 가슴으로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군민의 소리를 찾아가 듣고 실천하는 소통 행정을 할 것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함안조씨 곡성군 화수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문중 일에도 많은 참여를 해 왔다.

조현종 함안군의회 의원 당선



함안군 군북면과 법수면 농협단위조합에 24년간 근무하며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조현종(趙顯種, 南溪公 후 忠毅公派) 종원이 군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활동 중이다.
(본보(63호 참고))

조노제 종원 사무관 진급

함안면 화수회 총무로 야무지고 치밀한 업무와 활달한 성격으로 종원들에게 신뢰를 받아온 조노제(趙魯濟, 斗巖公派 · 함안우체국 근무) 총무가 사무관으로 진급을 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부지런하고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정보통신부 장관 상과 국무총리상(본보61호 참고)을 받기도 했다.



특별한 인연들



군북초 조원래 교장



군북중 조효래 교장



군북고 조창래 교장

본향 함안군 군북면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일가들이 많이 고향을 떠나 이제 인구비율로 보면 일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특별한 인연으로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다. 2014년 후반기 경상남도 교육청인사로 조원래(趙元來, 南溪公后 大笑軒公派) 교장이 군북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자, 군북중학교 조효래(趙孝來, 執義公派) 교장, 군북고등학교 조창래(南溪公后 監察公派) 교장이 모두 군북중학교 19회 동기동창이며, 같은 집안에 같은 항렬이라며 화제가 되고 있다.

受贈圖書目錄

※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年 1月24日부터 2014년 9月25日까지

연번	接受日字	圖書名	卷(冊)數	寄贈者住所 · 姓名
1	2014.01.24	韓國現代文學史	1	경남 창원시 趙鏞健
2	3.31	西巖門中 교양교실	1	부산 趙鏞柱
3	4.09	晋陽鄭氏 殷熱公派 宗報	1	전양정씨은열공파 대종회
4	4.10	咸安趙氏 典書公派譜	1	전남 남원시 趙正仲
5	7.30	내고향 함안	1	부산화수회장 趙倉濟
6	8.01	心佑方	1	울산 남구 조종래
7	9.25	咸安趙氏 判決公派譜	1	대구 중구 趙良濟

인사 이동

조현천 종원 중장 진급 기무사령관에 임명



조현천 종원은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어모

공파 집성촌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38기) 졸업, 8사단 16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 8기계화 보병사단장, 육군 학생군사학교 24대 학교장, 국군사이버 사령관(소장) 등을 역임하고 이번 인사 이동에 기무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어모장군(恵昌) 후예들이 모여 사는 지보 면에 국문학자 조윤제(서울대 교수) 박사, 영문학자 조운제(고려대 교수) 박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조현설 교수 외에 여러 명의 박사가 배출되어 박사촌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번 조장군의 진급으로 무관 배출에도 자극이 될 것 같다. 참고로 부산에서 태어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어모장군의 후손이다.

조정규 종원 육군준장 진급



대구광역시 사인동 판결사공파 집성촌에서 태어난 조정규(趙正奎) 종원은 육사 40기로 수석 졸업하여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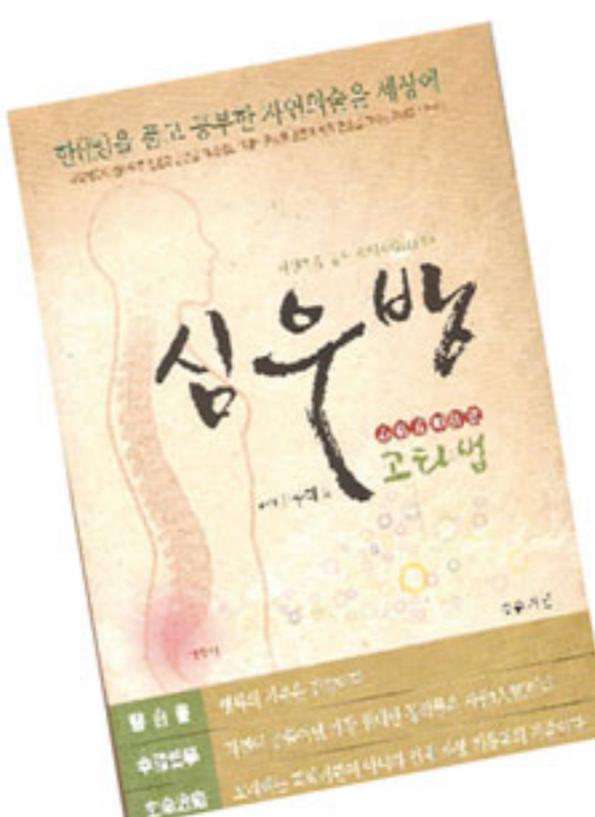
임관 후 여러 요직을 거친 후 12연대장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야

전부대에서 작전분야 주요 직책을 두루 수행해 왔다.

학구파로 고등군사반 우등, 육군대학 수석 졸업, 미합중국 공로훈장(2회), 대통령 표창 등 큰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10월 7일 군 인사이동 때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출판 소식



심우방이라는 책을 출판한 조증래(趙曾來) 종원은 경남 함안군 가야면 광정리에서 태어 났지만, 선조는 여러 대를 함안면 한절골 집의공파 집성촌에서 살았다. 부인이 1986년 신부전 증으로 사경을 헤매자 현대

조증래 종원 『심우방』

의학으로 고치고자 노력 하였으나 병원에서 포기하고 나중에는 무관심으로 결국 사별하게 된다. 이때부터 한을 품고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연섭리와 음과 양의 원리에 따라 신체구조를 이해하면 생명체의 삶과 질병의 발생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고 꼬리뼈를 기준으로 한 신체골격 교정과 자생 치유적 의술을 터득하여 2001년부터 회원을 중심으로 심우방을 개원하고 무료건강지도를 하였다.

침이나 사혈요법 등으로

만여명 이상 무료치료를 했으나 실정법 위반이라 하여 벌금을 받기도 했다.

지금 저자는 의료법과 무관한 직접 개발한 운동요법인 교정체조, 천·미추·고타법, 쑥뜸요법과 생활습관을 지도하여 자생치유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터득하고 깨우친 것을 이번에 태대체의학『심우방』이라는 책으로 엮어 지난 5월 8일 서울 정음서원에서 출판했다.

저자는 현재 울산에서 자생치유, 건강힐링센터 심우방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 변경 및 정리

도로명 주소 시행과 이사 등으로 종회보가 전보다 많이 반송되어 문중의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경비 절약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종회의 일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대종회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 평소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은 대종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조씨 대종회 사무실 (055) 585 - 6787~8
함안조씨 대종회 홈페이지 www.hamanjo.co.kr

임원 . 이사회비(협찬금) (단위:千원)

○ 지로 · 종회보 계좌<2014년 03월 01일
~2014년 09월 30일까지 · 입금순>

趙鏞哲	부산	부산진구(고문)	300
趙性五	경남	김해시(고문)	100
趙鏞敏	전남	나주시(고문)	100
趙鍊奎	경남	함안군(고문)	200
趙東輝	경북	안동시(대종회장)	10,000
趙顯大	부산	해운대구(부회장)	200
趙煥來	경북	안동시(부회장)	100
趙鏞燮	경남	함안군(수석부회장)	100
趙良濟	대구	중구(부회장)	100
趙鍾來	경남	함안군(자문위원)	100
趙鍾連	부산	해운대구(자문위원)	100
趙末來	부산	해운대구(자문위원)	100
趙庠濟	경남	함안군(자문위원)	100
趙政奎	경남	창원시(자문위원)	100
趙漢濟	경남	함안군(이사)	100
趙鏞秀	경남	창원시(이사)	100
趙鏞彬	경남	창원시(이사)	100
趙廣濟	울산	남구(이사)	100
趙炳奎	경남	함안군(이사)	100
趙顯旭	울산	중구(이사)	100
趙顯國	서울	서초구(이사)	100
趙勝濟	대구	수성구(이사)	100
趙曉濟	경남	함안군(이사)	100
趙國濟	경남	창원시(이사)	100
趙在鴻	대구	북구(이사)	100
趙聖來	경남	함안군(이사)	100
趙敬濟	경남	함안군(이사)	100

임원 · 이사회비 협찬금 계좌번호
농협 177441-51-001861
함안조씨 대종회

대종회 운영협찬금

趙鳳來	경북	문경시	마성면	100
조봉영	경북	문경시	마성면	100
조성제	전북	화수회장		100
조경래	경남	남해군		100
조병우	안동	참지공파	화수회장	100

訃音



대종회 부회장 조기대(趙基大, 在, 79세, 舍人公派)
옹이 6월 17일 타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
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적부를 정년한 후 같은 학교에 소속된 청계 서당에서 후학을 양성 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번역에 참여하기도 한 함안조문의 인재였다. 많은 문집을 읽다가 『담헌집(淡軒集)』에서 어계선생 시 9수를 발견하고(한 수는 이미 어계선생집에 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8수) 대종회에 보고하여 어계선생집을 다시 출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종회보 협찬금 명단(단위:千원)

○ 지로 · 종회보 계좌<2014년 03월 01일
~2014년 09월 30일까지 · 입금순>

조재위	(주)솔루에타	1,000
조정수	경남 함안군 함안면	50
조정중	전남 남원시 운봉읍	100
조문도	울산 남구 옥현로	30
조한제	경남 함안군 가야읍	50
조창흠	부산 수영구	10
조철래	경남 함안군 군북면	100
조광익	대구 남구 대촌큰길	10
조용태	경북 성주군 대가면	30
조동휘	경북 안동시 운흥동	1,000
조강래	대구 달서구 감삼동	200
조현태	경북 포항시 남구	30
조홍제	경남 함안군 군북면	20
조내관	서울 마포구 임정로	10
조용철	부산 수영구 수영로	30
조화제	경남 함안군 산인면	10
조형래	울산 동구 봉수로	50
조현채	주소불상	30

조현옥	울산 중구 우정동	50
조영래	경북 고령군 성산면	50
조용섭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0
조용철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100
조갑제	부산 서구 명지동	50
조현옥	부산 영도구 청학2동	50
조범래	주소불상	30
조종연	부산 해운대구 죄3동	100
조의제	울산 중구 동동	30
조명제	울산 울주군 상북면	50
조세진	대구 달서구 한실로	20
조경제	경북 경주시 외동읍	30
조성래	부산 금정구 남산동	100
조제선	경북 영주시 풍기읍	30
조현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	100
조연규	경남 함안군 산인면	50
조정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50
관결공화수회	대구(회장 조양제)	100

종회보 협찬금 계좌번호
농협 805047-51-069486
함안조씨 대종회

각종 협찬금 헌성자 명단

桃廟享禮

(단위 : 千원)

연번	성명	금액	비고
1	趙弼濟	300	서울 강남구 (顧問)
2	趙鏞哲	200	부산 부산진구 (顧問)
3	趙洪來	200	경기 의정부 (顧問)
4	趙允來	100	경기 고양시 (諮詢委員)
5	趙官來	100	경남 창녕군 (司果公派종회장)
6	趙仁奎	100	울산시 남구 (울산화수회장)
7	趙鏞岩	100	경남 창원시 (斗巖公派)
8	趙炳宣	50	함안 산인면 (執義公派)
9	叅判公派宗會	100	
계		1,250	

복달음 협찬자

(단위 : 千원)

연번	성명	주소	금액	비고
1	趙性勳	함안군 군북면 (斗巖公派)	50	
2	趙鏞岩	창원시 마산합포구 (斗巖公派)	50	
3	趙鏞燮	함안군 군북면 (節度使公派)	50	
4	趙鏞均	함안군 가야읍 (節度使公派)	50	
5	趙英濟	함안군 함안면 (執義公派)	100	
6	趙勳濟	함안군 군북면 (忠毅公派)	50	
7	趙貞濟	함안군 가야읍 (潤松堂公派)	50	
8	趙東濟	창원시 마산합포구 (斗巖公派)	50	
9	趙貞濟	창원시 마산합포구 (參議公派)	50	
10	趙權濟	함안군 가야읍 (執義公派)	50	
11	趙俊濟	창원시 의창구 (執義公派)	50	
12	趙倉濟	부산시 남구 (忠毅公派)	100	
13	趙國濟	창원시 마산회원구 (參議公派)	100	
14	趙相濟	진주시 상대동 (判決公派)	50	
15	趙鍾來	함안군 가야읍 (東溪公派)	50	
16	趙赫來	함안군 군북면 (執義公派)	100	
17	趙益來	함안군 군북면 (參議公派)	50	
합계			1,050	陰 6 월 2 일 中伏